

뉴스 사회

음주에 쓰레기 방치·방뇨까지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 '몸살'

"오줌 냄새 진동 소란" 합포구청 민원 잇따라
시 "계도외 방법 없어"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3월 07일 수요일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일부 시민이 음주·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와 경찰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쓰레기 등 흔적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문화광장은 지난 2016년 12월 완공됐다.

문화광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수한 씨는 "벤치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오줌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지금(3일)도 4명이 술을 드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에는 덜 하다가 최근 날이 풀리면서 다시 이런 분들이 늘고 있어 주변 상인들이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오동동 문화광장에는 봄철을 맞아 각종 공연·행사 등이 열릴 예정인 데다 특히 여름철에는 분수를 찾는 아이와 부모가 많아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을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다. 김 씨는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시민으로서 문화광장을 이용할 권리도 있어 쫓아낼 순 없는 노릇이지만 또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했다.

창원시와 경찰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다. 마산합포구청에 민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 도시재생과가 관련 단체와 지도·계도를 했지만 개선하기 어려웠다. 마산합포구청에 따르면 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은 거주지가 있어 노숙자는 아니다.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한 경찰은 "인권 문제도 있어 강압적으로 내쫓거나 할 수 없어 항상 애를 먹는다"며 "소란에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도 "정말 답답한 문제다. 행정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과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공통으로 "대안을 찾으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사실 쫓아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광장을 누릴 권리와 인권 문제 등에 따라 그럴 수 없고, 당장은 계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시민사회부 김희곤입니다. 마산지역 다양한 제보받습니다. 010-4037-1080

댓글 0

폰트